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양향근 해설**  
<http://g.daejangbu.com/>

1. 다음 중 준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기력아
- ② 국말이
- ③ 애꾸눈아
- ④ 열무

[해설] 정답 ② '국말이'는 국에 만 밥이나 국수란 뜻으로 한글 맞춤법 4장 4절 27항에 나오는 합성어 규정이다.

[해설]  
-> 기력아  
애꾸눈이야 -> 애꾸눈아  
어린 무 -> 열무

2. 다음 중 예덕선생전이 실린 곳은 어디인가?

- ① 연암집(燕巖集)
- ② 열하일기(熱河日記)
- ③ 과농소초(課農小抄)
- ④ 방경각외전(放靄閣外傳)

[해설] 정답 ④ (2019년 10월 8일 모의고사 문제)  
예덕선생전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한문 단편소설로《연암외집(燕巖外集)》의 <방경각외전(放靄閣外傳)>에 수록되었다. 방경각외전에는 총 9편이 실려 있다. 마장전(馬駟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양반전(兩班傳), 김신선전(金神仙傳), 우상전(虞裳傳), 역학대도전(易學大盜傳), 봉산학자전(鳳山學者傳)이 실려 있다.

- ▶작가: 박지원
- ▶연대: 정조 때(18세기 후반)
-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성격: 교훈적, 예찬적, 설득적, 실천적
- ▶주제: 바람직한 교우(交友)의 도(道)와 직업적 차별 타파, 엄행수의 무실역행(실천공행)하는 삶
- ▶의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인간성의 긍정과 평등사상이 담겨 있으며, 직업차별 타파 정신이 담겨 있다.
- ▶출전: 방경각외전

3. 다음 중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내용과 예문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쓴다.  
예) 김 양수, 서 화담
- ②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김 선생, 민 박사
- ③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
- ④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 한국 대학교 사범대학

[해설] 정답 ② (2020 국어 교재 1권 p. 136-138)  
[오답 해설] ① 김양수, 서화담  
③ 만성 골수성 백혈병(원칙), 만성골수성백혈병(허용)  
④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원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허용)

4. 다음 중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 ② 전초병도 앞세우지 않고 가다가 적에게 가슴을 당했다.
- ③ 그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유학까지 보냈다.
- ④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다.

[해설] 정답 ② (국어 교재 1권 p. 76)  
문제는 '사동' 표현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피동'형 문장을 찾으면 된다.  
②번 '당했다', '당하다'는 어휘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는 단어다.

5. 다음 중 사자성어의 한자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 ② 전전반측(輾轉反側)
- ③ 사필귀정(事必歸定)
-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3권 p. 80)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올바른 한자다. 문제에 있는 '정(定)'은 '정할 정'로 잘못된 한자 표기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소리는 호남의 ~ ( 복원 미흡 )  
[중략]  
오페라의 아리아에 해당하는 ㉠더늠  
  
일상적 이야기에 해당하는 ( ㉡ )

6.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명창의 장기로 인정되고, 또 다른 창자들에 의해 널리 연행되어 후대에 전승된 것이다.
- ② 독창적이면서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주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 ③ 명창 개인의 이름이 붙게 되고,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말한다.
- ④ 명창이 한 바탕 전부를 다듬어 놓은 소리를 말한다.

[해설] 정답 ④ (복원 미흡) (국어 교재 2권 p. 232)  
해당 지문은 “판소리의 세계”란 작품의 일부분이다.  
㉠'더늠'은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디'는 명창이 한 바탕 전부를 다듬어 놓은 소리를 말한다. 더늠이란 말은 '더 놓다'라는 뜻. 바디라는 말은 '선생님에게 받았다'라는 뜻.  
더늠이 어느 특정대목을 이르는 것에 비하여 바디는 판소리 한마당 전체의 짜임새를 뜻한다.  
참고로 판소리의 3대 요소는 '소리, 아니리, 발림'이다.



13. 다음 작품과 같은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업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 ① 4음보의 율격 유지한다.
- ② 3장 6구 45자 내외, 대체로 3·4조, 4·4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4음절로 고정한다.
- ③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라고 볼 수 있다.
- ④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해설] 정답 ② (교재 2권 p. 218, 229, 287)  
 지문의 작품은 '왕방연'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형식상 '시조'에 속한다. 시조는 고려 중기에 발생, 고려 말에 그 형식이 확립되어 조선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지은 시)다. 임금이나 양반 등의 지배층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했으나 조선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평민, 기녀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3글자)로 고정한다.  
 이 작품은 조선 세조 때(1456년 6월) 의금부 도사로서 영월에 유배되는 단종을 호송하는 책임, 사약집행을 맡았던 지은이(왕방연)가 단종을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느낀 비통한 심정을 감성 이입(시넷물)의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 현대어 해석 >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어린 임금님(조선 단종)을 이별하고  
허전한 내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냇가에 앉으니  
저 시냇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며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14. 밑줄 친 맞춤법 표기가 올바른 것끼리 묶은 것은?

- ㉠ 날씨가 추워서 옷옷을 걸쳐 입었다.
- ㉡ 그는 책상에 앉아 있는 채로 윗몸을 뒤로 젖힌다.
- ㉢ 산 윗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 ㉣ 그는 아랫니로 윗입술을 자꾸만 깨무는 버릇이 있다.
- ㉤ 그는 펜을 꺼내기 위해 옷도리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해설] 정답 ② (교재 1권 p. 191-192)  
 : 맨 곁에 입는 옷.  
 윗몸: 허리 윗부분의 몸.  
 위쪽: 위가 되는 쪽. ('윗' 뒤에는 된소리X. 윗쪽X)  
 윗입술: 위쪽의 입술.  
 옷도리: 허리의 윗부분. = 윗옷(위에 입는 옷). 옷도리X

15.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셋별 - 새벽별
- ② 제가꿈 - 제각기
- ③ 멀찌감치 - 멀찌가니
- ④ 심술꾸러기 - 심술쟁이

[해설] 정답 ① 새벽별X (교재 1권 p. 162-166)  
 '셋별'은 1. '금성(金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 장래에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  
 여기서 '새'는 '동쪽' 또는 '흰[白]'을 뜻한다.

16. 다음 중 표준발음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 형은 꼬리만 먹겠다던 봉어빵을 야금야금 절반을 더 먹었다.
- 낫선 사람이 알은척을 한다.
- 흰 눈이 쌓인 거리를 걷다.
- 양가(兩家) 부모님들의 상견례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 ① 야그마금, 나썸, 싸힌, 상견례
- ② 야그마금, 낫썸, 싸힌, 상견네
- ③ 야금냐금, 낫썸, 싸힌, 상견네
- ④ 야금냐금, 낫썸, 싸인, 상견네

[해설] 정답 ④ (교재 1권 p. 180, 183)  
 - 야금야금 [야금냐금, 야그마금]  
 - 낫선[낫썸] 참고: 낫설다[낫썰다] 형용사  
 - 쌓인[싸인] 참고: 쌓이다 [싸이다] 동사  
 - 상견례[상견네]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신라[실라] 천리[철리]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상견례[상견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변화한다.

(나) 특정한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공시대라고 하고, 어떤 언어의 변화 상태를 통시대라고 할 때, 공시대는 같은 언어의 같은 시기에 속하는 언어 상태를 말하며, ㉡통시대는 같은 언어의 다른 변화 시기에 속하는 다른 언어 상태를 말한다.

(다) 그러나 모든 언어 현상은 항상 역사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있다. 즉 공시적 언어 현상은 항상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어 동요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적 언어 상태는 새로이 생겨나는 요소와 없어져 가는 가는 요소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시대는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라) 언어의 변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통사 현상 역시 변화한다. 통사 변화에는 역시 문법범주의 변화와 문장구성의 변화를 포함한다.

17. 다음 중 보기의 지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은?

< 보기 >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 공시태에서 다른 공시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 ① (가)의 뒤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④ (라)의 뒤

[해설] 정답 ①

해당 지문은 권재일 교수님의 "한국어 통사론"이란 책의 일부 내용에 해당한다. 원문 그대로 지문을 옮겨 놓았고, 보기의 지문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은 (가)의 뒤라 하겠다. 원문에서도 (가)의 뒷부분에 보기 지문이 들어가 있다. (가)의 중간에 '언어의 변화'를 언급했고, 보기의 시작이 '이러한 언어의 변화'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가)의 뒤가 알맞은 정답이 되겠다.

18.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① 자의성
- ② 역사성
- ③ 사회성
- ④ 창조성

[해설] 정답 ②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 역사성

19.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① 모음조화의 현상의 변화
- ② 청자높임법이 실현된 단어의 변화
- ③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
- ④ 아래아, 순경음비읍의 변화

[해설] 정답 ③

그 언어가 시간축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 신조어의 등장은 이전에 해당하는 언어를 알 수가 없고, 그 언어의 변화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통시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열내지 스물
- ② 음식을 각자 먹을만큼 먹어라.
- ③ 여기서부터가 서울입니다.
- ④ 십이억 삼천사백 오십육만 칠천팔백 구십팔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1권 p. 136-138)

- ① 열 내지 스물 ('내지'는 앞뒤로 띄어쓰기한다.)
- ② '먹을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만큼'은 띄어쓰기.
- ③ 여기서부터가 (조사가 둘 이상 겹쳐져도 붙여 쓴다.)
- ④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만, 억, 조'

[21-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緣分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꺾어 잇고 ㉠님 하나 날 꺾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터 노여 업다.  
 平평生생애 願원호호더 ㉡흔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서 廣광寒한殿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下하界界에 느려오니.  
 울 저귀 비슨 머리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燕연脂지粉분 잇디마는 놀 위호야 고이 호고.  
 마음의 미친 실음 疊疊疊疊이 빠져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人生生은 有有限한흔디 시름도 그지 업다.  
 無무心심한 歲歲月월은 물 흐르 듯 흐느고야.  
 (가) 炎염涼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덕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21. 다음 중 (가)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 ①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
- ② 임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한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④ 임에게 연락없이 세월만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해설] 정답 ④ (19년 10월말 모의고사 문제)

(가)부분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부분이다.

(가) 炎염(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덕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현대어 해설]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오니(계절이 빨리 바뀜, 시간이 빨리 흐름)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22. 밑줄 친 ㉠-㉣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님 하나 날 꺾시니: 님 하나 오직 날 사랑하시니
- ② ㉡흔디 네자 호얏더니: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 ③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형클어진 지 삼 년이라
- ④ ㉣디느니 눈물이라: 지나가는 것은 눈물이라.

[해설] 정답 ④ (교재 2권 p. 257-258)

㉣디느니 눈물이라: 흐르는 것은(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지문은 정철의 '사미인곡'.

23. 다음 중 맞춤법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그 사람은 교장선생님으로써 할 일을 다했다.
- ② 이 문제를 대화로서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③ 나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
- ④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해설] 정답 ③ (교재 1권 p. 187)

-로서: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냄 예) 학생으로서  
 -로써: 수단, 방법, 재료, 원료 예)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다.

24. 다음 중 표준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조용히
- ② 번듯이
- ③ 따듯이
- ④ 꼼꼼이

[해설] 정답 ④ (교재 1권 p. 143)  
-> 꼼꼼히 (0)

25. 남사당패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버나: 대집과 칠판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놀이.
- ② 어름놀이: 줄꾼이 줄타기를 하면서 재담을 주고 받으면서 가창까지 놀이.
- ③ 덜미: 꼭두각시놀음이라 불린다.
- ④ 살판: 판소리를 부르면서 마당에서 하는 놀이.

[해설] 정답 ④  
살판: 몸을 날려 공중에서 회전한 뒤 바로 서는 놀이.  
오늘날 텀블링과 유사한 놀이다.  
- 남사당패: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남사당패 놀이의 여섯 종목인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의 연희를 공연했던 남성 집단.

\*\* 모두 애쓰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

군무원 대장부 학원

<http://g.daejangbu.com/>